

## “완벽 시공으로 올림픽 지원”



### 정동기 강원건설단체연합회장

2015년은 평창동계올림픽 시설공사가 본격화되는 해인 만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건설인들도 철저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완벽시공을 기해 올림픽 성공

개최는 물론, 안전한 강원도 만들기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업체 물량 창출과 비정상적 관행들의 개선을 통한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 발표 등 강력한 경기 활성화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를 기회로 새로운 일거리를 발굴하고, 친환경·융복합 기술 등 미래 건설시장의 성장동력을 개발하여 우리 스스로가 물량을 창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인들도 구태의 답습에서 벗어나 윤리경영·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수요자와 생산주체 모두가 발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 사회공헌활동 등 건설을 통한 나눔문화도 확대해 도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올해 전국체전 역대 최고 성적 도전”

도육상경기연맹 이사회·정기총회  
3·1절 경축마라톤 등 성공개최 다짐

강원육상이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최고 성적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도 육상경기연맹은 6일 대한건설협회 도회 대회의실에서 이사회 및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지난해 강원육상을 결산하고 2015년 한 해를 설계했다.

정동기 회장은 “강원육상인들의 노력으로 강원육상은 지난해 전국체전에

서 종합 3위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며 “올해는 전국체전이 강원도에서 열리는 만큼 최고 성적을 내 더욱 발전하는 강원육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육상은 지난해 제주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11개 등을 획득하며 17개 시·도 가운데 종합 3위를 차지했다. 강원육상의 활약을 앞세워 강원도는 종합 9위를 차지하며 2년 만에 전국체전한 자릿수 등의 탈환에도 성공했다.

이날 도 육상경기연맹은 3월1일 강원일보 주최로 춘천에서 열리는 제56회 3·1절 경축 단축마라톤대회를 비롯한 각종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을 다짐했다.

앞서 정동기 회장은 도연맹에 발전기금 500만원을 기탁했으며 최강진 도체육회 총무과장, 이인범 도교육청 장학사, 주대하 설악고 교사에게 강원육상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공로패를 전달했다. 김보경기자 bkk@kwnews.co.kr



◇도 육상경기연맹은 6일 대한건설협회 도회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도육상경기연맹 대의원 총회** 강원도육상경기연맹(회장 정동기)은 6일 도건설협회 회의실에서 2015년 대의원 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했다. 또 이날 정 회장은 협회 발전기금으로 500만원을 기탁했다. 박주석